

## PA-48

**벼 출수생태형에 따른 충북지역 재배지대별 출수한계기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적정 이앙시기**이채영<sup>1\*</sup>, 최예슬<sup>1</sup>, 이희두<sup>1</sup>, 김익제<sup>1</sup>, 홍성택<sup>1</sup>, 김정곤<sup>1</sup>, 우선희<sup>2</sup>Chae Young Lee<sup>1\*</sup>, Ye Seul Choi<sup>1</sup>, Hee Du Lee<sup>1</sup>, Ik Jei Kim<sup>1</sup>, Seong Teak Hong<sup>1</sup>, Chung Kon Kim<sup>1</sup>, Sun Hee Woo<sup>2</sup><sup>1</sup>충청북도농업기술원<sup>2</sup>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<sup>1</sup>Chungbuk Agricultural and Extension Services, Cheongju 28130, Korea<sup>2</sup>Dep. of Crop Science, Chungbuk Nat'l Univ., Cheongju 28644, Korea**[서론]**

충북지역은 중부평야지, 중북부중산간지, 남부중간지로 벼 재배지대가 다양하다. 과거보다 재배기간이 길어지고, 등숙기 고온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앙시기를 늦춰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충북지역 출수생태형별로 출수한계기를 구하고 이를 역산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적정 이앙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.

**[재료 및 방법]**

충북지역 벼 재배지대별 시험지역은 중부평야지 청주에서는 농업기술원, 중북부중산간지 제천 및 남부중간지 보은에서는 농가포장에서 수행하였다. 시험품종은 출수생태형별로 조생종 오대, 진광, 중생종 삼광1호, 청품, 중만생종 삼광, 진수미를 사용하였다. 이앙시기는 제천이 5월 10일~6월 10일(조생종 6월 20일 까지), 청주와 보은은 5월 20일~6월 20일로 각각 4회 이앙하였다. 각 지역별 표준재배법에 준하였고, 재식거리는 청주 및 보은은 30×15cm, 제천은 30×12cm로 기계이앙하였다. 보통기 보비 재배로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여 10a 당 질소사용량은 청주와 보은 9kg, 제천 10kg으로 각각 사용하였다. 출수 40일간 평균기온을 구하고,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를 구하여 출수한계기를 구하였다.

**[결과 및 고찰]**

벼를 주로 재배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1981년부터 30년간 평균기온을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청주는 1.2°C, 제천은 0.6°C, 보은은 0.9°C 각각 증가하였다. 각 지역의 월별 증가폭은 청주가 1.1~1.7°C로 가장 높았고, 제천은 0.1~1.1°C, 보은은 0.5~1.3°C로 중부평야지에서의 기온상승이 뚜렷하였다.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은 21~22°C가 적당하는데 이를 토대로 추정된 출수한계기는 청주에서 8월 28일, 제천에서 8월 15일, 보은에서 8월 20일 이었다.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각 지역별 적정 이앙시기는 청주에서 조생종 6월 30일, 중생종 6월 20일, 중만생종 6월 10일~20일, 제천에서 조생종 6월 20일~30일, 중생종 6월 10~20일, 중만생종 5월 20~30일, 보은에서 조생종 6월 20~30일, 중생종 6월 20일, 중만생종 6월 10일~20일로 분석되었다. 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
**[Acknowledgement]**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(과제번호: PJ0384805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\*Corresponding author: Tel. +82-43-220-5552, E-mail. metmega@korea.kr